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강 기 정(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교수)
송 원 영(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은 정(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2010년 4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정부 주도의 센터사업들을 참고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수치상으로 급증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제는 기존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유목화하고, 균형 잡힌 체계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내용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실시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모델 개발 연구> 내용의 일부이며, 조사시기는 2009년 3월 17일부터 2009년 3월 26일까지로 지역센터 58개소(75.3%)의 설문분석과 종사자의 의견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네트워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88%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별 혹은 담당부서를 두어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센터의 95%는 지역사회 가족복지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센터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55%가 만족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활동을 통해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4.8%의 응답자는 센터의 역량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 혹은 활동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오는 외부적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 전국의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센터 예산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별도예산 및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며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센터는 지역사회 대표적 가족복지전달체계로서, 네트워크 활동시 지역주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전국 동일 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단위 전달체계로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 전담팀 및 담당자 등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자원 유목화와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체계 구축모델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